

백악관
공보비서실

즉시 배포용
2015년 4월 14일

안내문: 모든 주민들을 환영하고 이민자와 망명자의 융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강화

"전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2백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전통으로 인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장점을 누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젊고, 다이내믹하며, 기업가 정신이 활발한 미국의 특성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국민, 즉 과거에 의해 갇히지 않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리메이크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특성을 형성되었습니다.

— Barack Obama 대통령, 2014년 12월 21일

금일 배포된 새로운 보고서에서 전국적으로 융화 노력을 강화하고 환영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연방 정부의 목표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미국인에 대한 백악관 전담반'은 오늘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향후 수개월 간 동 전담반은 본 계획에 명시된 핵심 목표를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12월에도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현재, 4천1백3십만 명의 외국 출생 거주자들이 미국 내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그들의 지역사회의 활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전세계를 망라하는 국가들로부터 1975년 이래에 이곳에 와서 이주 정착한 3백만 이상의 망명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들과 망명자들은 우리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구조에 많은 보탬을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번영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3%가 외국 출생자이지만, 외국 출생 근로자들은 현재 미국 노동력의 17%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에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은 미국 노동력의 순증가의 85%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사업 개척 정신이 있어서 전체 신설 사업의 28%를 개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미국 경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 New American Economy)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은 합해서 전세계적으로 1천만 명 이상을 고용하며 4조2천억 불의 연간 매출을 창출하는 포춘 500대 기업의 40% 이상을 창업하였습니다.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우리의 성공은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 나라의 구조에 융화시키는 우리의 성공적인 역사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융화는 새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정착하는 지역사회의 오래 된 주민들을 함께 모아서 이해를 촉진하고, 포용성을 장려하며, 경제적 성공을 가속화하고, 안전하고 활기차며 응집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해나가는 다이내믹한 양방향 과정입니다. 우리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획득합니다. 비록 공식적인 융화 전략은 없지만, 식구, 고용주 및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지역사회가 이민자 자신의 노력과 결합될 때 이민자들은 신속하게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동시에 지역사회, 비즈니스 리더, 주 및 지방 정부 및 정책입안자들은 신중한 융화 노력의 전개가 가치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자 및 망명자 융화 노력을 연구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유지해왔으며, 최상의 관행과 핵심 원칙, 특히 "환영하는 지역사회" 운동에 의해 영감을 받아 사항들을 적용해왔습니다. 환영하는 지역사회는 이민자와 망명자와 외국 출생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는 시, 카운티 또는 타운입니다. 초기에 행정부는 3대 융화 주축, 즉 시민적, 경제적 및 언어적 융화를 확인하였으며 근 6년 동안 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민자 및 망명자들에게 필요한 언어 훈련 기회, 커리어 개발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각 주축과 관련된 제반 기회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 부처간 기구인 새로운 미국인에 대한 백악관 전담반("전담반")을 구성하였습니다. 16개의 연방 부, 기관 및 백악관 부서들의 인사들이 전담반에 참여합니다. 전담반의 활동은 백악관 국내 정책 자문위원회의 디렉터인 Cecilia Muñoz와 미국이민국 국장인 León Rodríguez가 이끌어 갑니다.

전담반은 보다 전략적이며 신중한 방식으로 연방 정부의 융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주요 목표 및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환영하는 지역사회 구축:** 융화는 주로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양방향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전담반은 이민자와 받아들이는 지역사회 간의 교량을 구축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입니다. 핵심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영하는 지역사회 구축 도전:** 금년 봄에 전담반은 기존 활동을 지원하고 추가 지방 정부들이 그들의 지역의 필요에 맞는 융화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하도록 장려하는 챌린지를 시작할 것입니다.
 - **지역사회를 위한 도구:** 많은 지역사회들은 환영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계획을 개발하고 개선을 실행할 모델과 자원이 없습니다. 전담반은 이러한 지역의 활동을 안내하고 연방 자금지원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할 것입니다.
 - **지역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미국인 인력:** 지방 지역사회 및 주들은 환영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최전선에 있지만 그들의 능력은 종종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CNCS)은 활동적인 아메리코 VISTA 대원들을 지역사회에 투입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부문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지방 융화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 ▶ **기존 귀화 경로의 강화 및 시민 참여 촉진:** 매일 우리 나라에 사는 이민자들과 망명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시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전담반은 새로운 미국인들이 자원 봉사활동을 하며, 부를 환원하며, 귀화의 혜택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핵심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권 대중 인식 캠페인:**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시민권의 권리, 책임 및 중요성과 사용 가능한 시민권 준비 도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전국적, 다국어 미디어 매체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 **시민권 및 융화 보조금 프로그램:** 4월에 미국이민국(USCIS)은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내의 시민권 준비 프로그램들을 위한 최고 1천만 불의 경쟁적인 보조금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 **시민권 및 귀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통령 대사:** 전담반은, 귀화를 촉진하고, 융화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인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기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미국인들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 **귀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 파악:** 미국이민국은 영주권자들에게 그들의 귀화 자격에 대해 통보할 것입니다. 이에 는 기존의 케이스 현황 및 전자 제출 도구를 이용하여 영주권자 카드를 갱신하거나 교체하려고 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잠재적 귀화 자격에 대해 통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시민권 지원활동 파트너십 확장:** 지난 5년 동안 미국이민국은 지역사회에서 시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 및 공립 도서관들과 협조하는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5년에 미국이민국은 지방 정부와의 공식 [합의 서신](#)의 수를 배가하고 이러한 지방 파트너십을 확장할 추가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 **이동 융화 서비스 확대:** 미국이민국은 서비스 불충분 지역에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할 것이며, 농촌 및 기타 서비스 불충분 지역사회에 기반이 있는 미농무부(USDA)와 같은 연방 정부기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 **새로운 미국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도록 장려:** CNCSS는 이민자들과 망명자들 가운데 자원봉사 기회들을 촉진할 것입니다. 2015년 9월에 전담반 구성원들은 새로운 미국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원 봉사할 기회를 촉진하고 연례 시민권 주간 활동 중에 자원 봉사할 새로운 미국인들의 성공적인 이야기들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 **망명자 아메리코 프로그램:** 보건복지부(HHS)의 망명자정착실(ORR)과 CNCSS가 망명자 인구의 융화를 위해 지방 지역사회들을 돕는 망명자 아메리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 ▶ **기능 개발 지원, 기업가 정신 및 소기업 성장 조성, 새로운 미국인 근로자 보호:**
 새로운 미국인들은, 근로자 및 기업가로서 우리의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담반 구성원들은 이민자 및 망명자들의 경제적 융화를 계속 촉진할 것입니다. 핵심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미국인들을 위한 소기업 훈련 과정 및 도구:** 중소기업청(SBA)은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민자 및 망명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상 도시 내에서 새로운 "101" 수업들을 시험 실시할 것입니다. SBA는, 새로운 미국인 기업가들이 비즈니스 및 재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돕는 도구를 만들 것입니다.
 - **미국산 캠페인:** 성공담을 홍보하고 사람들이 SBA 도구와 자원을 이용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SBA는 SBA를 소기업 자원으로 이용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미국인 기업가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새로운 "미국산" 캠페인을 출범시킬 것입니다. 또한 상무부는,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위한 대통령의 대사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썬데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민자 기업가 정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 **새로운 미국인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노동력 프로그램 실행** 연방 정부가 새로운 노동력 훈련 및 교육 법인 '2014년 노동력 혁신 및 기회 법(WIOA)'을 시행함에 따라 노동부(DOL)와 교육부(ED)는 자금 지원 기회 및 최상의 관행을 홍보하여 새로운 미국인들이 성공을 위한 도구를 제공받도록 할 것입니다.
 - **새로운 미국인들을 위한 커리어 진로 및 자격증 구비 도구:** 노동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커리어 진로 및 자격증 구비 안내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주 및 지자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민자 중심 커리어 진로 프로그램의 예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 **노동 보호 및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이민자 및 망명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강화:** 노동부는 법무부(DOJ), 미국이민국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노동자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정보를 새로운 미국인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 **유용한 주택 공급 프로그램 이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영어학습자(EL) 및 영어 구사력이 제한된 사람(LEP)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2년 시험 사업인 "HUD Speaks"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개발부는 주택도시개발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는 대화식 도구를 개발하고, 직원들을 위한 "I Speak" 카드를 새로 디자인하고, 주택도시개발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포스터를 배포할 것입니다.
- **언어적 융화 및 교육을 위한 기회 확장:** 영어 습득은 새로운 미국인들의 성공을 위해 절대로 중요합니다. 전담반은 고급 언어 습득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고 중등 이후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요람에서 커리어까지 전략을 실행할 것입니다. 핵심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들을 위한 조기 학습 도구:**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미국인 가족들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조기 학습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와 고급 조기 학습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에 관한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모 도구를 만들 것입니다.

- *영어 학습자(EL)들을 돕기 위한 유용한 관행 및 자원 부각:* 교육부는, 타이틀 III에 의거한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경험적으로 입증된 영어학습자 및 새로운 미국인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국인 및 영어학습자들의 독특한 필요를 충족키 위한 전문 교육자 개발을 포함해야 합니다.
- *ESL 과정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도록 고용주, 교육 시스템, 주 및 지방 정부, 기타 커리어 구축 기관에 장려:* 상무부 및 중소기업청(SBA)과 같은 연방 기관은 직업 전선에 있는 이민 및 망명 근로자들을 위한 ESL 과정, 교육 서비스 및 기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호 확대에 대한 정보와 도구를 고용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기타 전담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혁신적 ESL 교육 제공 모델을 시험 실행하고 지원하는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 *새로운 미국인들을 위한 기회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기관 프로그램, 지역사회 모델 및 주 정책을 부각:* 교육부는 젊은 새로운 미국인들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기관 프로그램, 지역사회 모델 및 주 정책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면,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Café College는 새로운 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지역사회 기반 대학 및 커리어 자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장소 기반 전략을 채택하는 프로그램들을 비롯하여, 새로운 미국인들을 지원할 잘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교육 보조금 프로그램 파악:* 전담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교육 보조금 프로그램 개발 시 또는 새로운 미국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 새로운 미국인들이 처한 문제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OR IMMEDIATE RELEASE

April 15, 2015

FACT SHEET: Strengthening Communities by Welcoming all Residents and Promoting Immigrant & Refugee Integration

“For more than 200 years, our tradition of welcoming immigrants from around the world has given us a tremendous advantage over other nations. It’s kept us youthful, dynamic, and entrepreneurial. It has shaped our character as a people with limitless possibilities — people not trapped by our past, but able to remake ourselves as we choose.”

— President Barack Obama, November 21, 2014

Our country has long been a beacon of hope and opportunity for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oday, 41.3 million foreign-born residents live in the United States and are contributing to the vitality of our country and their communities. This includes the over 3 million refugees who have resettled here since 1975 from countries that span the globe. These immigrants and refugees are adding much to our country’s social and cultural fabric, and are also critical to our country’s continued economic prosperity.

While 13 percent of the overall population is foreign-born, foreign-born workers represent close to 17 percent of the current U.S. labor force. Over the next 20 years,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will account for 85 percent of the net growth in the U.S. labor force. Immigrants are entrepreneurial, starting 28 percent of all new businesses. Moreover, a study by the Partnership for a New American Economy found that immigrants or their children have founded more than 40 percent of Fortune 500 companies, which collectively employ over 10 million people worldwide and generate annual revenues of \$4.2 trillion.

Our success as a nation of immigrants is rooted in our historic success in integrating newcomers into the fabric of our country. Integration is a dynamic two-way process that brings together newcomers and the long-time residents of communities into which they settle to foster greater understanding, promote inclusiveness, speed economic success, and build secure, vibrant, and cohesive communities. We achieve a great deal for very little effort. Though we have had no official strategy for integration, the family members, employers, and communities where immigrants settle — combined with the efforts of immigrants themselves — result in a rapid pace of immigrants becoming productive members of society. At the same time, communities, business leader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policymakers are recognizing the value of undertaking deliberate integration effort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studied immigrant and refugee integration efforts, maintained dialogue with stakeholders, and applied best practices and key principles, particularly those inspired by the “welcoming communities” movement. Welcoming communities are cities, counties, or towns that strive to bring immigrants and refugees and native-born residents together to create a positive environment for all. Early on, the Administration also identified three integration pillars — civic, economic, and linguistic integration — that have been its focus close to six years. Numerous agencies have worked to enhance opportunities across each of these pillars through programs that engage local communities and provide immigrants and refugees with access to training around language needs, career development, and support services.

To further these efforts, in November 2014, President Obama created a formal interagency body, the White House Task Force on New Americans (“Task Force”). Sixteen federal departments, agencies, and White House offices are represented on the Task Force. Its efforts are led by Cecilia Muñoz, Director of

the White House Domestic Policy Council, and León Rodríguez, Director of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The Task Force aims to further strengthen the federal government's integration efforts by making them more strategic and deliberate. Today, the Task Force is taking an important step by outlining the federal government's goals to strengthen its integration efforts nationwide and build welcoming communities. In the coming months, the Task Force will be guided by key goals identified in this plan. This December, it will also submit a progress report to the President.

Ø **Building Welcoming Communities:** Recognizing that integration is a two-way process that occurs primarily at the local level, the Task Force will support initiatives that build bridges among immigrant and receiving communities. Key actions include:

- *Building Welcoming Communities Challenge:* This spring, the Task Force will launch a challenge to support existing efforts and encourage additional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nd implement integration strategies tailored to their communities' needs.
- *Toolkit for Local Communities:* Many communities have the will to build welcoming communities, but do not have models and resources to develop plans and implement reforms. The Task Force will develop a toolkit to guide these communities in their efforts and to share information on federal funding and other initiatives.
- *New Americans Corps to Build Local Capacity:* Local communities, and states, are on the front lines of building welcoming communities, but their capacity is often limited. The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NCS) will inject energetic AmeriCorps VISTA members into communities to help them increase capacity, expand multisector networks, and develop and implement local integration plans.

Ø **Strengthening Existing Pathways to Naturalization and Promoting Civic Engagement:** Every day, immigrants and refugees living in our country are seeking out opportunities to serve and, in the process, are reenergizing communities. Millions are also eligible to become citizens. The Task Force will take actions to encourage new Americans to volunteer, give back, and consider the benefits of naturalizing. Key actions include:

- *Citizenship Public Awareness Campaign:* DHS will launch a national, multilingual media campaign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rights, responsibilities, and importance of U.S. citizenship, and available citizenship preparation tools.
- *Citizenship and Integration Grants Program:* In April,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nnounced up to \$10 million in competitive grant funding for citizenship preparation programs in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 *Presidential Ambassadors to Promote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The Task Force will harness inspirational stories of new Americans and others to promote naturalization, bolster integration initiatives, and increase awareness of the contributions of new Americans to our country. The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request appropriated funding for this program.
- *Identify Opportunities to Inform Individuals Eligible for Naturalization:* USCIS will notify permanent residents about their potential eligibility for naturalization. This will include leveraging its existing case status and e-filing tools to notify permanent residents seeking to renew or replace a permanent resident card about potential eligibility for naturalization.
- *Expand Citizenship Outreach Partnerships.* Over the past five years, USCIS has increased efforts to coordinate with cities and public librarie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citizenship in local communities. In 2015, USCIS will double the number of formal [letters of agreement](#) with local governments and seek out additional

opportunities to expand these local partnerships.

- *Increasing Mobile Immigration Services:* USCIS, will assess the feasibility of providing mobile services where underserved populations are located and will partner with federal agencies, such a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that have footprints in rural and other underserved communities.
- *Encourage New Americans to Serve:* CNCS will promote volunteer opportunities among immigrants and refugees. In September 2015, Task Force members will promote opportunities for new Americans and others to volunteer and serve, and highlight successful stories of new Americans who are volunteering or serving, during annual Citizenship Week activities.
- *Refugee AmeriCorps Program:*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 and CNCS will work toward implementing a Refugee AmeriCorps program to assist local communities with integration of refugee populations.

Ø Supporting Skill Development, Fostering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Growth, and Protecting New American Workers:

New Americans are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our economy, as workers and entrepreneurs. Task Force members will continue promoting the economic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refugees. Key actions include:

- *Small Business Training Courses and Toolkit for New American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will pilot new “101” classes in targeted cities with concentrations of immigrants and refugee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partners. SBA will also create a new toolkit to help new American entrepreneurs understand business and financial fundamentals so they can become lender-ready.
- *Made It in America Campaign:* To promote success stories and motivate individuals to take advantage of SBA tools and resources, SBA will launch a new campaign, “Made It in America,” to highlight notable new American entrepreneurs who have used SBA as a small business resource. The Department of Commerce will also promote immigrant entrepreneurship through the President’s Ambassadors for Global Entrepreneurship program and Business Sunday initiative.
- *Implement New Workforce Programs in Partnership with New Americans:* As the federal government implements its new workforce training and education law — the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of 2014 — the Department of Labor (DOL)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ED) will promote funding opportunities and best practices so that new Americans are provided the tools to succeed.
- *Career Pathways and Credentialing Toolkit for New Americans:* DOL, ED, and HHS will collaborate to release a career pathways and credentialing toolkit. This toolkit will provide information for states, localities, and will include examples of immigrant-focused career-pathways programs.
- *Bolster Outreach to Immigrants and Refugees to Promote Awareness of Labor Protections and Rights:* DOL, in partnership with Department of Justice (DOJ), USCIS, and others, will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worker rights and protections to new Americans.
- *Meaningful Access to Housing Programs:* HUD will launch “HUD Speaks,” a two-year pilot to improve communication with and enhance efforts to serve EIs and LEP individuals. As a part of these efforts, HUD will develop interactive tools that provide information on HUD programs in multiple languages, redesign “I Speak” cards for staff, and distribute posters to spread awareness about HUD programs and services.

Ø **Expanding Opportunities for Linguistic Integration and Education:**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is vitally important for new Americans' success. The Task Force will implement cradle-to-career strategies to enhance access to high-quality language acquisition and increase opportunities for post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Key actions include:

- *Early Learning Toolkit for Parents:* ED and HHS will create a parent toolkit to provide families, including new American families, with inform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early learning for their children and resources on how to find high-quality early learning programs.
- *Highlight Promising Practices and Resources for Serving English Learners (ELs):* ED will highlight effective, evidence-based interventions for ELs and new Americans, for use in federal programs such as the existing program for immigrant children under Title III. These interventions should include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educators to meet the unique needs of new Americans and ELs as a whole.
- *Encourage Employers, Educational System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Career-Building Institutions to Increase Access to ESL Courses:* Federal agencies, such as Commerce and SBA, will provide information and tools to employers about increasing access to ESL courses, education services, and other training programs for frontline immigrant and refugee workers. ED, in partnership with other Task Force members, will also explore opportunities to pilot and support innovative models of providing ESL instruction.
- *Highlight Effective Institutional Programs, Community Models, and State Policies that Enhance Opportunities for New Americans:* ED will highlight effective institutional programs, community models, and state policies that serve young people who are new Americans. For example, Café College, in San Antonio, Texas, offers community-based college and career advising opportunities to new Americans and their children.
- *Identify Education Grant Programs with Untapped Potential to Support New Americans, Including Programs that Employ Place-Based Strategies:* ED, as well as other Task Force members, will take issues confronting new Americans into consideration when developing education grant programs, or when awarding grants for programs under which new Americans are eligible to receive services.